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6
SUMMER



김봉준 교수 · 심장내과



Care & Love

원 고 모 집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환우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병원 소식지에 신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분량 : A4 2~3매의 원고
- 사연 보내실 곳 : pr3700@daum.net 또는 고객센터(3동1층)

독 자 Q U I Z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원보에 모든 정답이 있는 답이 보이는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3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응답기간: 2026년 8월 28일(금)까지
추첨결과: 2026년 9월 중



지금 바로 카메라를 열어
Quiz 정답을 남겨주세요
독자퀴즈 바로가기



CONTENTS



Kosin Spirit

- 04 선물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 06 이끄심을 따라, 스리랑카로 권민경·간호대학 4학년



Medical Essay

- 08 고령화 사회와 심부전 김봉준 교수·심장내과
- 12 조용히 사라지는 콩팥: 증상 없이 진행되는 노인 만성콩팥병의 진실
신호식 교수·신장내과
- 16 여름 밤, 아이를 잠 못 들게 하는 가려움 김희규 교수·알레르기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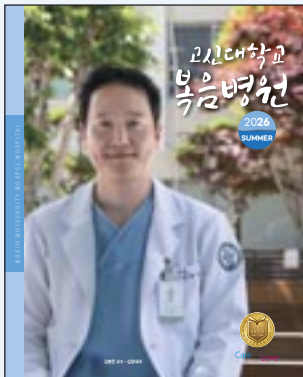


Culture & Life

- 18 미국에서 온 편지 #8 김다정 교수·혈액종양내과
- 21 제비가 왔다 김희자·수필작가
- 24 거제 노자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 28 한 번 더, 삶을 붙들며 정점진
- 31 원목실 추천도서

Kosin Inside

- 32 일곱 번째 우.부.소 - 약제부
- 36 환자 곁에서 보낸 축복의 시간 서혜정 부장·간호부
- 39 우리 병원 친절직원
- 40 칭찬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 42 포커스뷰
- 49 진료를 시작합니다
- 50 진료시간표



2026. SUMMER

발행인 최중순 | 발행일 2026년 6월 | 편집인 이형석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홍보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 051)990-3700~2 |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인쇄 현대출판인쇄사 051)464-5667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홍보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선물

글 | 김영대 · 원목실장

우리는 선물을 주어지는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물은 그 물건을 준비하고 꾸미고 전달하는 그 사람이 아닐까요?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나누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됩니다.

COVID-19 이후로 병실에서 커튼을 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방을 하려는 환자분과 딸의 대화가 커튼 너머로 들렸습니다.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것이 없어요?”

“괜찮다. 엄마가 미안한 것밖에 없다.”

“아니, 엄마. 드시고 싶은 것이 없냐고요?”

“내가 미안한 것밖에 없다. 몸뚱이라도 건강해야 하는데... 미안하대 이.”

88세의 어르신이 무슨 잘못이 그리 많아 딸에게 연거푸 사과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환자분은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시는 어르신입니다. 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더 주어질지 모르지만 의식이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미안하다’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엄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늦은 나이에 딸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세례를 받으신 어머니, 그 딸에게 어머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고맙데이. 내 평생 잊지 않을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시간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뒤돌아 나왔습니다.



“목사님, 성대에 폴립이 생겼습니다. 약을 먹어보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갑자기 신 목소리를 하게 되어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처방한 약을 먹었지만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더라도 속히 낫기를 기대했습니다.


“목사님, 수술을 하면 한 달은 사역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간혹 폴립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치료가 최선입니다.”

의사는 하나님의 치료를 권하고 목사는 교수님의 수술을 기대했었습니다. 참된 의사 되신 주님을 다시 목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을 넘어 상처 입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돌보는 하나님의 공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살아 있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죽음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에서 봉사하는 것이 목적 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방을 품기 위해 삶을 도전하겠습니다.”

의료선교훈련원(MMTC)이 진행되면서 훈련생들의 새신자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2명이 새신자교육을 받았습니다. 새신자교육은 옥철호 연구부원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복음병원의 초창기 회보가 ‘영아와 유아의 찬미’인데 새 생명을 덧입은 영아와 유아의 찬미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복음병원이 주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복음병원은 ‘치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복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복음병원은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병원 내에서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 만남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Prologue

이끄심을 따라, 스리랑카로

글 | 권민경 · 간호대학 4학년

스리랑카 의료선교 참가자 모집 포스터를 보았을 때, 저는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당분간은 선교에 참여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포스터를 본 순간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꼭 신청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낯선 나라를 방문해 보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었고, 그 이끄심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베트남 인턴십과 남아공·에스와티니 의료선교를 통해 다양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했고, 때로는 제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베트남 룡안에 위치한 세계로병원에서 약 2주간 인턴십을 진행했습니다. 베트남은 혈액 부족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혈액 보관과 공급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병원에서 필요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머물렀던 룡안 세계로병원 역시 병원 내에 보유 중인 혈액이 없었습니다. ‘혈액이 없는 병원’이라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

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에도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등 여러 수술이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혈액이 없다는 현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실습 기간 중 한 산모가 출산 후 지혈되지 않아 급히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산모는 큰 이상 없이 회복하였지만, 그 일을 통해 저의 의료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환자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인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수술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아공과 에스와티니 의료선교에서는 한 사람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2023년 선교 검진을 통해 유방암이 발견된 21세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무사히 수술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시간이 지나 암이 재발하면서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또다시 암이 재발하며 결국 유방 전절제술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이었기에, 그 친구는 수술 하루 전 “수술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저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위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교수님께도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친구 역시 다시 용기를 내어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선교가 단지 의료적 도움을 전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과 두려움을 함께 바라보고,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가장 필요한 순간 서로를 붙들어 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리랑카에서 어떤 만남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인도 남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나라로,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종교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특히 불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에는 ‘실론(Ceylon)’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지금도 ‘실론티’로 잘 알려진 차 문화가 유명합니다.

아직 제국은 낯선 나라지만, 그곳의 사람들과 문화,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먼저 배우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만남과 배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기대를 품고,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이어질 스리랑카 의료선교의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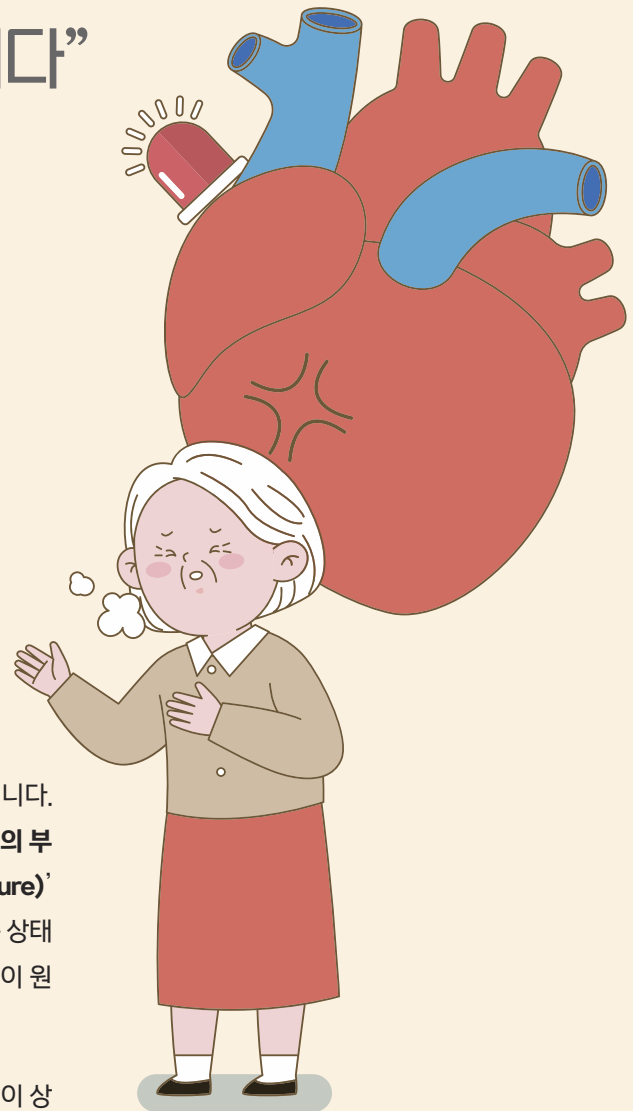
이 말씀처럼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스리랑카에서의 모든 만남과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령화 사회와 심부전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하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글 | 김봉준 교수 · 심장내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래 살게 되었지만, 그만큼 **만성질환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심부전(Heart Failure)**’입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암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에 비해 심부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최근에는 심부전이 **고령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심부전은 한 번 발생하면 완치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며, 반복적인 입원과 높은 사망률을 동반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심부전 환자는 왜 증가하고 있을까요?

심부전 환자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비만, 만성콩팥병, 심방세동과 같은 만성질환이 축적되면서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던 환자들이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존하게 되면서, 이후 **만성 심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국내 심부전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층에서는 매우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심부전이 단순히 “숨이 차다”는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피로감, 운동능력 저하, 다리 부종, 체중 증가, 야간 호흡곤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오인되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특히 주목받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

심부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의 수축 기능이 감소한 심부전이며, 다른 하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부전이라고 하면 심장이 약하게 수축하는 상태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심장의 수축 기능이 정상처럼 보이더라도 심장이 충분히 이완되지 못해 혈액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출률 보존 심부전입니다. 특히 **고령 환자, 여성, 고혈압 환자, 비만 환자, 당뇨병 환자**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만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HFpEF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왜 박출률 보존 심부전 진단은 어려울까요?

HFpEF의 가장 큰 문제는 **진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장의 수축 기능은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은 분명 숨이 차고 운동하면 쉽게 피곤한데, 검사에서는 “심장 기능이 정상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의 이완 기능 이상, 심근의 경직 증가, 좌심방 압력 상승, 폐혈관 압력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애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 노화, 폐질환, 체력 저하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HFpEF 진단을 위해서는 단순히 한 가지 검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자의 증상, 혈액검사, 심장초음파, 운동 시 반응, 폐고혈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심장초음파를 이용한 이완기 기능 평가, 좌심방 기능 분석, 우심실 기능 평가 등 보다 정교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부전 전문 진료에서는 환자의 호흡곤란 원인이 단순 폐질환인지, 심장의 이완기 이상 때문인지 세심하게 구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 환자에서는 여러 질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정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심부전은 단순히 심장만의 병이 아닙니다

최근 의학에서는 심부전을 단순히 심장의 기능 저하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부전은 **전신질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신장, 폐, 혈관, 근육, 대사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FpEF 환자들은 비만, 당뇨병,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만성콩팥병 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부전 치료 역시 단순히 이뇨제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혈압 조절, 체중 관리, 운동, 당뇨 조절, 부정맥 관리**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심부전 치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심부전 치료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심부전 치료가 증상 완화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제로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입원율을 감소시키는 약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약제군 중 하나가 SGLT2 억제제입니다. 원래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개발된 당뇨병 치료제였지만, 연구 결과 심부전 환자의 입원과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뇨병이 없는 심부전 환자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더욱 의미 있는 부분은 과거에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많지 않았던 **박출물 보존 심부전(HFpEF)** 환자에서도 증상과 예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부전 치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SGLT2 억제제로는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자디양(엠폴글리플로진)** 등이 있습니다.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심부전 치료에서도 중요한 약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안지오텐신 수용체-네프릴리신 억제제(ARNI)**와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제(MRA)** 같은 새로운 약제들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활용되고 있습니다. ARNI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약제이며, MRA는 몸속에 과도하게 쌓인 수분과 염분을 조절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치료제입니다.

최근에는 비만과 연관된 HFpEF 환자에서 **GLP-1 RA 제제** 또한 중요한 치료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약제는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위고비(Wegovy), 오젠폍(Ozempic)** 등의 주사제가 대표적인 GLP-1 RA 계열 약제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약제들이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심혈관 질환과 심부전 환자의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치료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장 안의 압력을 낮춰 호흡곤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심방 사이 벽(심방중격)에 작은 통로(shunt)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치료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 기구(shunt device)를 이용해 심장 안의 혈류 흐름과 압력을 조절하는 시술로, 일부 환자에서 증상 개선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수를 다녀온 미국 Northwestern Medicine의 산지브 샬(Sanjiv Shah) 심부전센터는 세계적으로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치료를 선도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원인에 따라 심부전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 분석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약 임상연구와 함께 이러한 심방중격 shunt device 치료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부전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
-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
-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 다리가 붓는다
- 밤에 숨이 차서 잠에서 깬다
- 최근 체중이 갑자기 증가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고령 환자라면 정기적인 심장 평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HFpEF는 초기 단계에서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전문적인 심장초음파 평가와 임상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



김봉준 교수 | 심장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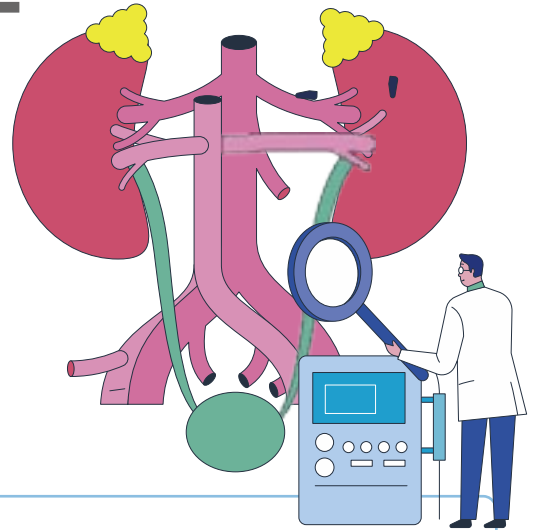
전문진료분야 | 심부전, 폐고혈압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외래	

조용히 사라지는 콩팥

증상 없이 진행되는 노인 만성콩팥병의 진실

글 | 신호식 교수 · 신장내과



꼭 기억할 내용 3가지

- ① 7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이미 만성콩팥병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국내 만성콩팥병 원인 1위·2위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해마다 소변 검사(단백뇨)와 혈액 검사(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를 빠짐없이 받으십시오.
- ② 혈압 약과 혈당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곧 콩팥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 2 억제제 (엠펙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등 계열)는 혈당 조절과 동시에 콩팥 보호 효과가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해 적합한 약을 선택하십시오.
- ③ 만성콩팥병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소변 거품, 부종, 지속적 피로감이 있으면 즉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투석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초고령사회, 콩팥 이야기를 시작할 때

2025년, 대한민국은 마침내 초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인 1,051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노년기는 오랜 세월의 열매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몸 곳곳에 누적된 세월의 무게가 드러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 무게 중 하나가 바로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고, 혈압·전해질·조혈 호르몬까지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장기가 고혈압과 당뇨라는 두 가지 조용한 질환으로 인해 오랜 세월 영향을 주고 노인의 콩팥기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위험의 상황을 알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썼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현실 – 우리 콩팥은 얼마나 위험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콩팥병 유병률이 70세 이상에서는 무려 26.5%에 달합니다. 노인 4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만성콩팥병을 안고 산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만성콩팥병 환자 증가 속도가 전 세계 1위라는 사실입니다. 연평균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률도 인구 1만 명당 18.8명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우리나라 만성콩팥병의 원인 1위는 당뇨병, 2위는 고혈압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 말 발표한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4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8만 2천 명으로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했으며, 관련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의 80.3%에 이릅니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2.4배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2024년 당뇨병 팩트시트는 더 구체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 10명 중 7명은 고혈압까지 동반하고 있으며, 절반은 고콜레스테롤혈증까지 세 가지를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콩팥을 공격할 때, 손상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고혈압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방법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수백만 개의 실핏줄 덩어리입니다. 이 섬세한 구조물이 높은 혈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처음에는 사구체 압력이 올라가 과도하게 일을 하다가 점점 굳고 딱딱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사구체경화증이라고 부르는 변화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인 사람은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 만성콩팥병 유병률이 4명 중 1명(23.1%)으로, 정상 혈압군의 8.2%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3기 이상의 중증 만성콩팥병 유병률도 정상 혈압자의 2.9배에 달합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 미국심장학회·심장협회(AHA/ACC)가 발표한 고혈압 지침은 당뇨나 만성콩팥병이 있는 환자에게 수축기 130mmHg, 이완기 80mmHg 미만의 적극적인 혈압 목표를 권고합니다. 유럽심장학회(ESC)도 2024년 개정 지침에서 같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지나친 혈압 저하로 인한 어지러움, 낙상 등의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주치의(신장내과 전문의, 투석전문)와 개인 상황에 맞는 목표를 함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가 콩팥을 조여오는 방법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혈관 곳곳에 당분이 들러붙어 벽을 두껍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합니다. 콩팥의 사구체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뇨병성 콩팥병(당뇨콩팥병)은 당뇨병 환자의 약 32%에서 발생하며, 말기콩팥병의 가장 큰 단일 원인입니다.

처음에는 소변으로 소량의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미세단백뇨'에서 시작합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단백뇨가 점점 늘고 사구체여과율(사구체여과율)이 떨어지면서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콩팥 기능이 소진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대개 무증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불편함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당뇨병학회 2025년 당뇨병 치료 기준은 당뇨병 환자에서 만성콩팥병 예방의 핵심은 혈당(당화혈색소 7% 목표)

과 혈압의 철저한 관리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혈당만 잡아도, 혈압만 잡아도 콩팥 손상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잡으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새로운 희망 –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 2 억제제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수용체 작용제

최근 의학계가 주목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혈당 강하제로 개발된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 2 억제제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카나글리플로진 등)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콩팥 보호 효과를 강력하게 입증한 것입니다. 202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 2 억제제는 사구체 내 압력을 낮추고 단백뇨를 줄이며 콩팥 기능 악화를 늦추는 복합적인 작용을 합니다. DAPA-CKD 연구에서 다파글리플로진은 당뇨 유무와 무관하게 만성콩팥병 진행 위험을 44%나 낮췄습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수용체 작용제(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등)도 단백뇨를 줄이고 동맥경화성 심혈관 사건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FLOW 연구에서 세마글루타이드는 당뇨콩팥병 환자에서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을 24% 감소시켰습니다. KDIGO 2024년 만성콩팥병 지침은 이런 새로운 약물들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2025년 미국 당뇨병학회 기준도 당뇨콩팥병 환자에서 두 계열 약물의 병용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약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기능이 많이 감소된 노인에서는 용량 조절이나 금기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신장내과전문의/투석전문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도 예배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몸을 성실히 돌보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이 오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으로 검진이나 치료를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게으름과 방치를 덕목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몸의 위험 신호를 미리 살피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콩팥은, 수십 년 동안 온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쉬지 못한 몸이 버텨온 결과물입니다. 어르신들이 혈압약과 혈당약을 제때 복용하고 있으신지, 정기 검진을 제대로 받고 있으신지를 살피는 것도 공경의 한 형태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검진 동행, 약 복용 체크, 식단 관심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콩팥의 수명을 수 년 더 연장하는 의미있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행동해야 합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9)는 말씀은, 내 몸도 사랑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포기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몸과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일상에서 콩팥을 지키는 실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은 가장 쉽고 강력한 콩팥 보호방법입니다. 세계 지침은 하루 나트륨 2g(소금 약 5g) 미만을 권고합니다. 국, 찌개, 젓갈,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콩팥에 직접 부담을 줍니다. 또한 중등도 신체활동(하

루 30분, 주 5일 이상 걷기)은 혈압·혈당·체중을 동시에 관리하는 최고의 비약물 치료법입니다.

처방된 혈압약과 혈당약은 불편감이 없어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임의로 중단하면, 그동안 막아오던 콩팥 손상이 재개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등 일부 진통제)는 콩팥 혈류를 줄여 급격한 콩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노인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영제가 사용되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전에도 콩팥 기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콩팥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만성콩팥병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속도를 늦추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혈압을 측정하시고 소변 거품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주치의(신장내과전문의/투석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시고 혈당약/혈압약을 잘 복용하세요. 콩팥은 조용히 일하지만, 당신이 관심을 가지면 그 수고에 충분히 보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감사함으로 돌보는 것, 그 첫걸음을 지금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

감사의 말

이 글은 최근 발표된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문 용어를 최소화하여 작성했습니다. 의학적인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주치의(신장내과 전문의, 투석 전문의 등)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식 교수 | 신장내과

- 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신장내과 교수 /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장기이식연구소 소장
- 현, 대한신장학회 투석이사 / 대한신장학회 유전신질환연구회 회장
- 현, 사단법인 생명잇기 총무이사
- 현, 대한이식학회 기획위원회/학술위원회 위원
- 전, 미국 하버드대 BWH 신장내과 교환교수/이식연구센터 연구원



전문진료분야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특수클리닉
오후	외래		외래	외래	



*본 원고의 이미지는 AI(Gemin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여름 밤, 아이를 잠 못 들게 하는 가려움 아토피피부염 이야기

글 | 김희규 교수 · 알레르기내과

밤 11시가 넘은 시간.

겨우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다시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팔꿈치 안쪽은 빨강게 달아올라 있고, 무릎 뒤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는 자면서도 계속 뒤척이고,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혹시 우유 때문일까요?”

“계란을 먹어서 더 심해진 걸까요?”

“보습제를 이렇게 열심히 바르는데 왜 좋아지지 않을까요?”

진료실에서도 보호자들은 비슷한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이런 고민은 더 많아집니다. 더운 날씨에 땀까지 나면 피부가 쉽게 자극을 받고, 밤에는 가려움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아토피피부염은 아이들에게 매우 흔한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조금 건조한 정도가 아니라, 피부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심한 가려움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벽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는 그 벽에 작은 틈이 생긴 상태와 비슷합니다. 피부 속 수분은 쉽게 빠져나가고, 반대로 집먼지진드기나 세균,



꽃가루 같은 자극 물질은 피부 안으로 더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몸의 면역세포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워집니다. 아이는 참지 못하고 긁게 되고, 긁은 상처 사이로 세균이 들어오면서 진물이나 딱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가려움과 염증이 서로를 더 심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음식 때문에 아토피피부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영유아기에는 식품알레르기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사 없이 무조건 우유나 계란을 끊게 되면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솔깃해 음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의해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아이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라고 해서 특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장벽을 잘 지켜주는 것입니다. 목욕은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고, 목욕 후에는 피부가 마르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극이 적은 면 소재 옷을 입는 것도

움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해 걱정하는 보호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의의 진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피부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피부 손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부작용 부담을 줄인 새로운 치료제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로 조절되지 않던 중증 환자들이 밤잠을 되찾고, 반팔 옷을 편하게 입게 되는 모습을 볼 때면 의료진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아토피피부염은 단기간에 완전히 끝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꾸준히 관리하며 조절해 나가는 만성질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도, 부모도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견디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치료와 올바른 관리가 함께한다면 아이들은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웃으며 뛰어놀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만큼은 아이가 긁지 않고 편안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을 의료진과 보호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희규 교수 | 알레르기내과

전문진료분야 |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면역결핍질환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휴진**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미국에서 온 편지 #8

글 | 김다정 교수 ✕ 혈액종양내과



안녕하세요. 혈액종양내과에서 혈액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김다정입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 더럼(Durham)에 위치한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병원 혈액종양 및 세포치료 분과에서 연수 중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듀크대학교가 미국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는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주로, 동쪽으로는 대서양을 접하고 서쪽으로는 애팔래치아산맥(Appalachian Mountains)이 이어져 있어 바다와 산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도인 롤리(Raleigh), 듀크대학교가 위치한 더럼(Durham), 그리고 채플힐(Chapel Hill) 일대는 'Research Triangle(리서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며, 이 지역에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연구단지인 Research Triangle



Park(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가 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제약·IT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 있어 연구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지금껏 도시에서 생활해 온 저에게는 이곳의 한적함, 아침마다 들리는 새소리, 집 앞을 지나다니는 다람쥐와 거위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 혈액암센터 외부

듀크 혈액암센터에서는 혈액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CAR-T 치료, 항암치료, 수혈 및 지지요법이 외래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듀크는 1992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외래 기반 조혈모세포이식 프로그램을 시작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치료로 여겨졌던 조혈모세포이식을 외래에서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다발골수종을 진료하시는 최태웅 교수님의 외래 및 입원 환자 진료를 참관하고, 여러 미팅과 연구에 참여하면서 CAR-T 치료와 한국에서는 아직 사용이 제한적인 새로운 항암 치료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치료 과정과 결과를



▲ 최태웅 교수님과 외래 진료시간 사이에 Workroom에서 찍은 사진

분석하는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치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듀크 혈액암센터 입구에는 거의 건물 높이에 이를 만큼 큰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와 주변의 넓은 잔디밭은 종종 혈액암 환자들이 고강도 치료를 받는 공간임에도 병원이 주는 긴장감을 조금 덜어주는 듯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치료인 조혈모세포이식과 CAR-T 치료가 80% 이상의 환자에서 외래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약 3~4주간의 집중 치료 기간 동안 환자들은 병원 인근에 머물며 매일 외래를 방문하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수혈, 감염 관리, 치료 관련 독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막대한 치료비와 한국의 사보험 환경 등을 생각하면 이러한 외래 기반 시스템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낮병동과 입원 병동, 응급실, 코디네이터, 전문간호사, 의사 등 다양한 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환자를 돌보는 체계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연수하며 또 하나 크게 느낀 점은 신약 접근성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약처 허가뿐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급여 기준이 실제 진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신 치료제를 환자에게 사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이곳에서는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과 진료 지침,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약제들이 비교적 빠르게 실제 진료에서 논의되고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었을 환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이나 논문에서만 보던 약제들이 실제로 투약되고 좋은 치료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의 환자들, 그리고 끝내 치료 기회를 얻지 못했던 환자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담당 교수님의 소개로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Raleigh First Korean Baptist Church)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로 이루어진 ‘누가선교회’가 있어 지역사회와 해외에서 의료선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자신의 병원과 시간을 기꺼이 내어놓고 섬기는 모습을 보며 복음병원의 교수님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멀리 미국에 와서도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병원의 이름과 사명을 새롭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 잠시 멈추어 중간 점검을 하고 다시 방향을 가다듬는 하프타임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만나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초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끼며,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최종순 병원장님, 박무인 학장님, 이호섭 교수님을 비롯한 혈액종양내과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곳의 파란 하늘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아이들과 매일 오가던 등하굣길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이 보고, 배우고, 연구하여 한국에 돌아갔을 때 진료, 연구, 교육 등 여러 면에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듀크대학교 Chapel-듀크대학교 West Campus의 중심에 위치한 듀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김다정 교수 | 혈액종양내과

• **전문진료분야**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제비가 왔다

글 | 김희자 수필작가



밖이 요란하다. 녀석이 또 왔는가 보다. 마당에 고양이가 나타나자 불안한 제비가 목청을 높인다. 보호 본능을 발휘한 제비 떼가 낮게 날며 고양이를 경계한다. 새끼를 보호하려고 경계하자 고양이도 담 아래 숨어서 호시탐탐 어린 제비를 노린다. 이럴 땐 누구 편에 서야 할까? 먹이사슬에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나는 매번 고양이를 쫓아낸다. 이제 막 날개에 힘이 생겨 비행 연습을 하는 새끼 제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연록이 다투어 눈을 뜨던 사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제비가 온 걸 알았다. 공중이 하도 소란하여 시선을 두니 제비 몇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서 지절대고 있었다. 까마득히 잊고 지내던 제비를 만나니 나도 몰래 환호성이 터졌다. 옛 동요처럼 푸른 바다 건너서 봄이, 봄이 왔다. 제비 앞장세우고 온 봄은 천지를 꽃물로 들이더니 수채화 같은 풍경을 그렸다. 빨랫줄에 나란히 앉은 제비 가족이 반가웠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자 뒷집 엄마와 마루에 앉았던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을 엿들었다. “요즘은 제비도 게을러 현 집에서 새끼를 키워요!” 새집을 짓지 않고 현 집에서 새끼를 키운다며 쫓쫓 혀를 찼다. 책상 앞에 앉았던 나는 문틈으로 새어드는 말을 듣고 씩 웃었다. 어머니는 제비가 게을러졌다고 하셨지만 내가 봐선 그렇지 않았다. 늦은 밤까지 빨랫줄에 앉아 지저귀던 제비는 첫새벽에 깨어나 수다를 떨었다.

어느 날, 공중을 날던 제비가 아랫집 뒤란 처마 아래로 드는 걸 목격했다. 처마 아래엔 제비 둥지가 있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제비는 새집을 짓지 않고 현 집에 드나들었다. 옛집을 한동안 맴돌더니 흙과 지푸라기로 둥지를 단장했다. 어떤 날은 자기 몸집의 몇 배나 되는 지푸라기를 물고 와 둥지로 들였다.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벌건 대낮에 짹짹기를 하려는지 전선 위나 빨랫줄에 앉아서 애정행각을 벌였다. 알을 낳아 품으려고 감나무 아래서 사랑을 나누었다. 마루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는 제비가 빨랫줄에만 앉으면 나를 불렀다.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면 제비는 재빠르게 날아갔다. 제비가 날렵하게 나는 것은 하늘을 나는 어떤 벌레보다 빨라야 먹잇감을 얻기 때문이다.

왈차한 도심과는 달리 고향은 조용하고 평화롭다. 공기가 좋아 자연이 살아 숨 쉰다. 요즘 나는 ‘지지배배, 지지배배.....’ 지절대는 소리 때문에 잠을 깬다. 수다쟁이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뜨면 새벽이다. 새벽녘 지절대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고향 집에 머물고 있음을 실감한다. 생명의 계절을 알리는 전령사,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는 제비는 그야말로 부지런하다.

부지런도 하지만 재빠르기 때문에 우체국을 상징한다. 반가운 소식을 재빠르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일제 식민지 시절 날쌔게 만주까지 달려가는 급행 기차 이름이 제비였고 수년 전 영화화된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 이야기에도 제비가 등장했다. 영화 제목은 청연(靑蓮), 파란 제비였다. 제비는 고속열차처럼 빠르고 비행기처럼 날쌔게 움직이는 것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비의 속도를 배워 비행기를 만들고 항해술을 배워 나침반과 레이더를 만들었다.

내 유년 시절에 봄이 옴은 곧 제비가 온다는 의미였다. 해마다 춘삼월이 되면 봄을 업고 제비가 왔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강남으로 갔다가 3월 3일 삼짇날에 돌아왔다. 수가 겹치는 날에 갔다가 돌아오는 새라고 해서 길조로 여겼다. 제비가 왔다는 건 한마디로 희망이었다. 돌아온 제비는 처마 밑에 동지를 틀었다.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른 새는 높은 나뭇가지 위나 깊은 풀숲에 동지를 틀거나 알을 낳는데 유독 제비만이 사람과 가까웠다.

집에 제비가 동지를 트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길 전조라 믿었고, 새끼를 많이 치면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또한, 제비를 다치게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여 조심시켰다. 어디 그뿐인가. 행운을 물고 오는 영물이라며 신주 모시듯 했다. 그만큼 제비는 사람과 친밀했다. 제비에 대한 믿음과 사랑 덕에 흥부전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나 요즘 제비는 귀찮아하는 사람들의 낚새를 알아채고 피하는 모습이다.


바지런한 제비가 새끼를 기를 땀 하루에 삼백 번이나 먹이를 물어다 나른다고 한다. 어미 제비가 먹잇감을 물고 둥지로 돌아오면 새끼들은 저마다 노란 주둥이를 짹짹 벌리고 먼저 달라고 아우성친다. 영리한 어미 제비는 먹이를 준 녀석과 주지 않은 녀석을 신통방통하게 구별한다. 주둥이를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물린다. 배가 가장 고프 새끼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까닭이다. 이처럼 제비가 알을 낳아 새끼를 치는 모습은 사랑 그 자체이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듯 나 역시 고향을 떠났다가 옛집으로 돌아왔다. 옛 동지에 돌아와 제비처럼 꿈을 꾸다. 천혜의 자연과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고향에서 작품을 하나둘 낳아 기르고 있다. 작품 한 편 한 편을 인물 좋게 키워 더 넓은 세상으로 내보낼 요량이다. 먼 길 갔다 돌아온 제비처럼 나도 청운의 꿈을 펴기 위해 새벽마다 책상 앞에 앉는다.

고양이를 경계하는 제비를 지켜보다 오늘도 난 약자 편에 서고 말았다. 하지만 고양이가 매번 새끼제비를 노리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도 제비 부부는 동지 가까이에 얼씬 못 하게 위협한다. 제비집을 살며시 엿보니 비행 연습을 하던 새끼제비 다섯 마리가 모두 들어 비좁다. 비행이 서툰 새끼들이 웅크리고 앉아 먹잇감을 물고 올 어미를 기다리고 있다. 여름 동안 날개에 힘을 돋워 남쪽 나라까지 가기 위한 비행을 꿈꾼다.

천상을 그리워하는 것은 모두 날개가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날개가 없다. 인간이 하늘로 오르고 싶다는 희원(希願)은 꿈에 불과하다. 기대하며 바라는 게 멀면 멀수록 그것은 얼마나 애달픈 일인가. 나는 새처럼 날 수 없음을 안다. 하지만 날개가 없다 하여 어찌 비상을 꿈꾸지 않으랴. 새는 하늘이 있어 날개를 퍼덕이고 꽃은 바람이 있어 향기를 날린다. 진정한 작가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눈을 크게 뜨고 세상 보는 생각의 날개를 달아야 한다.

나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비상하지 못했다. 물이 뒤돌아보지 않고 흘러가듯 나는 한시도 뒤돌아보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왔다. 생각의 날개가 더는 녹슬지 않게 이제는 새끼제비처럼 비행 연습을 하려 한다. 침묵하며 지낸 세월을 저버리고 자유를 향한 날갯짓을 하기 위해 잡자리 날개 같은 비단옷을 입는다.

이제 남은 일은 침묵하던 언어를 토하는 것. 내 몸은 지상에 있지만, 영혼은 우주를 유명하기 위해 비상을 꿈꾼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여행하기 위해 비행 연습을 하는 저 청연처럼. 

구름 가까이 가고 싶다면...
거제 노자산

글 | 노경만 산 · 여행작가





피어나는 해무 속에서 신비로운 섬들 ▲

자연 앞에 서면 문득 마음이 비워지는 순간이 있다. 복잡했던 생각이 잦아들고, 굳어 있던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순간 말이다. 아마도 여기가 노자산老子山이기 때문일까. 울창한 숲과 바다, 그리고 섬들이 만들어내는 풍경 속을 걷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자연은 말없이 섬과 위로를 건네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전부 품안에

노자산(565m)은 거제시 동부면 학동, 구천, 율포, 부춘리에 걸쳐 위치한 산으로 울창한 수목과 기암절경이 어우러져 불로초가 있다는 전설이 회자되는 신선의 산이라는 의미로 그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옛날 팔만대장경을 만든 나무가 여기의 것이라는 사실도 전해진다. 거제도의 최고봉인 가라산과 능선으로 이어져 있고, 신비의 새 팔색조가 산다는 천연기념물 제233호 학동의 동백림을 품고 있다. 산 아래에는 <거제자연휴양림>과 <학동흑진주몽돌해수욕장>이 있으며, <해금강>과 <바람의 언덕> 등 유명휴양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무엇보다 최고는 여기에 서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전부가 눈 속에 품 안에 들어온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가 생기면서 더 유명해지고 찾는 이가 많아진 산이다.

산행은 학동고개에서 시작한다. 고현버스터미널에서 55번 버스를 타고와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학동고개는 남파랑길 거제23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시작부터 울창한 숲길이다. 경사도 그리 심하지 않고 걷기 편한 흙의 길이 계속 이어진다. 햇볕이 들지 않아 시원하고, 새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오고, 비목나무의 은은한 레몬향이 코끝을 간질이고, 앞을 키운 단풍취 무리가 발자국 따라 같이 걸어준다. 군데군데 나무 벤치가 놓여있어 쉬어가기도 좋다. 힐링이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학동해변과 해금강이 보이는 바다풍경

약 2~30여분 정도 지난 후부터 오르막이 시작되면 더러 돌부리가 발길에 차이기도 하고 돌계단이 눈앞을 가로막기도 한다. 그렇다고 험하지는 않고 약간 숨이 차오르는 정도이다. 걷다가 오르막길 앞에서 고개 들어 올려다본 어느 순간, 깜짝이야, 문득 눈이 마주친 오소리가 잠시 당황하다 이내 생각을 바꾼 듯 뒤돌아 사라진다. 반가웠고, 희한하게 여운이 남는다. 지금은 말라있는 산삼약수터를 지나고 나무계단이 놓인 길을 오르고 또 걷다보니 어느새 가라산-노자산 삼거리 갈림길에 도착한다. 이제 오름길은 거의 끝난 셈이다. 쉬엄쉬엄 약 1시간여를 걸었다.

바람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설렘

지척에 윤슬전망대가 있다. 오름길 내내 조망이 트이지 않은 때문일까? 전망대에 오르는 순간 와아, 하고 탄성이 절로 나온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온 탐방객들의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시원하게 터지고 있다. 내리쬐는 햇빛조차도 시원하게 느껴진다. 동남쪽 바다 위에선 윤슬이 반짝이고, 서쪽 바다엔 저 멀리서부터 낮게 깔려오는 해무가 바다색을 더 파랗게 물들이고 있다. 낮게 번지는 해무 속 자욱한 섬들이 아스라하게, 혹은 비밀스럽거나 신비로운 모습으로 점점이 다가온다. 매물도 기왕도 장사도 죽도 추봉도 용초도 한산도 신달도 등등…….

윤슬전망대 바로 아래엔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 도착장이 있고, 노자산 정상은 그 건물을 지나 임도를 따라가다 그네전망대가 있는 나무계단을 오르고, 전망대 지나 계단을 또 오르다 보면, 그곳에 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윤슬전망대와 다르지 않다. 비록 재방송이긴 하지만 너



▲ 윤슬전망대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 ▲

무 감동적이라 다시 심장을 요동치게 한다. 그 옛날 노자께서 이르시길 ‘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했으니, 저 바다와 그 물 위에 뜬 풍경을 바라보자니 그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는다.

과연 노자산老子山이라 할만하다.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은 정말로, 진짜로, 멀지 않은 날에 세상 시름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 그리고 그 후에 가득히 밀려오는 설렘이다. 무위자연의 도가 따로 있지 않다.

노자산에서 보는 ‘해맞이’도 ‘해보냄’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하니, 활엽수림이 우거져 가을 단풍 또한 절색이라 하니, 꼭 한번 와보시라.

부춘리 해양사 방향(2km)으로 정상에서 첫 임도에 도착하기까지 내려가는 길은 아주 거칠고 아찔하다. 더러는 밧줄을 잡아야하는 구간도 있다. 그래서 이 길은 피하기를 권한다. 좀 돌아가는 선택이긴 하여도 올라왔던 그네전망대 쪽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임도를 따라 내려가는 길을 추천한다. 더 수월한 산행 길로는 임도를 따라 <거제자연휴양림>을 통해서 오가거나, 처음부터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내리는 방법도 좋은 선택일 터이다.

고현버스터미널에서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로 운행하는 버스는 55번, 부춘리 해양사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51번, 67-1번이 있다. 거제자연휴양림 앞 정류장에는 55번외에도 67, 67-1번이 정차한다. 

독자 에세이 #06

**한 번 더,
삶을 붙들며**

글 | 정점진



부산 태종대와 송도 쪽 영도의 부산 외항에 큰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다는 것은 거친 항해를 마치고도 종착지이자 쉼터인 내항에 정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고 한다. 화물을 내리기도 하고 배를 수리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한데도 외항에 배가 많다는 것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림프종 재발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 2020년 3월에 나는 한 번의 큰 시련을 겪었지만, 착한 암에 대한 완치의 착각으로 지난 5년을 살았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매사에 응대하는 일반적인 색상의 안경을 버리고, 나만의 색깔로 세상을 대하면서 늘 쫓기는 일상과 스트레스로 살았던 방식이 몸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했다.

3개월 주기의 정기 검진인 11월에 왼쪽 겨드랑이에 생긴 몽우리에 대해 문의했으나 무시되었고, 1월 제주도 여행 때 야트막한 능선을 오를 때 평소와 달리 숨이 차였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동네 병원에 진료를 받은 결과 폐 사진과 겨드랑이 몽우리에 대한 심각성으로 상급 병원 진료를 추천받았다.

다가오는 2월 17일은 정기 검진이 6개월 주기로 바뀌고 첫 검진이라 이때까지 기다리면 결과를 알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상황이 급박함을 깨닫고 파티마병원 진료를 택하고 검사를 위한 입원을 했고, 결과적으로 상급 병원을 추천받고 2월 7일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입원했었다.

8일의 입원 끝에 수척해진 몸으로 퇴원하고 치료 방법 설명을 듣고 3월 초로 접수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기다리기로 했었다. 그사이 10일 동안 체중 감소와 쇠약해지는 기력으로 시간을 소비하였고, 급기야 2월 20일 입원하고 표적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번은 재발한 암에 대한 치료인지라 두려움이 앞선다. 넘어진 김에 쉬어 갈 수 있을지는 운명이겠지만, 그래도 기회를 얻는다면 먼저 나를 지탱해 준 직업에 대한 마무리이다. 어렵게 입수한 자료인 “알루미늄 및 초고장력강의 용접 시공”의 경험을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나와 분리가 되도록 정리하고 집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또래가 겪은 한국 근대사의 일상적인 현상이지만, 그래도 집안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빌었다. 그것은 이른 시일 안에 바라던 대로 아들이 ○○○대학교에서 우뚝 서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월 중에 신체가 보내 주는 이상 신호를 무시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 약간의 명함과 허탈로 병원을 전전하면서 입원과 치료를 받은 지 두 달이다. 작년 8월에 회사를 그만두라는 아내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 가슴에 와닿는다.

성장기의 환경이 홀로서기라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잔뜩이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의지하게 해 준 독립유공자 후손분이 있었고, 우연한 40여년의 해후지만 치료 결정과 힘든 투병의 고비 때마다 무한 신뢰해 준 의대 교수가 있었다. 의료대란으로 서울의 의료 쇼핑은 해 보지도 못했지만, 파티마병원의 추천과 친구의 신뢰를 바탕으로 2월 5일부터 1차로 22일을, 3월 15일부터 2차 9일을 견디고 있다.

암 병동에서 바라보는 노년기 삶은 의사, 식사, 주사가 곧 의·식·주이다. 병동의 병실은 얇은 천 조각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살아온 삶의 영역을 최대한으로 줄인 공간이다. 그 공간마저도 크기가 벽찰 때가 있다.

커튼 내 자기 세상에서 현실과 타협하거나 박차고 나오는 것은 보호자들의 힘이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바라보는 링거 거치대가 솟대 같거나 십자가처럼 보이고, 이동 침대나 휠체어를 타면 만감을 가진 이들의 시선이 쫓힌다.

약물 치료는 꼬시래기 제 살 뜯어 먹는 방식으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피부는 오래된 정부 비축미 쌀처럼 기름기가 없다. 환자들의 눈은 흐리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가족은 연명과 비용 사이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거나 마무리를 빨리하고 싶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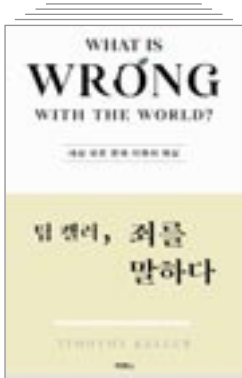
입원 내내 눈을 뜨고 살아 있음을 위해 병동을 최대한 길게 잡아 복도를 거닐어 본다. 어느 한 쪽이 시작이었다면 다른 한쪽은 끝이거늘, 병원에서 내려다보는 큰길 건너에서는 삶이 있다.

분리수거장에서 쓸 만하게 분리되어 재활용되는 삶을 기대한다. 뒤늦게 한 움큼 쥐 손안에 무엇은 욕심인 건가? ♣

독자에세이 원고모집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 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팀 켈러, 죄를 말한다 | 세상 모든 문제 이면의 핵심 | 팀 켈러 저 | 윤종석 역 | 두란노 | 2026년 4월 22일

책소개

세상 모든 혼돈의 뿌리인 '죄'의 다면적 얼굴을 파헤치다. 세상은 눈부시게 진보하는데 어쩌서 사방에 악과 고통이 멈추지 않는가. 우리는 왜 선을 원하면서도 자신을 파괴하는 길을 선택하는가. 대체 세상은 왜 이 모양이며,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이러한 것일까? 팀 켈러는 특유의 예리한 시선으로 날마다 보도되는 절망적이고 참혹한 인간의 악과 고통의 원인을 추적한다. 그는 이 현상을 단순히 생물학, 심리학, 사회 구조적 문제로만 환원하려는 현대 세속 지성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정면으로 마주하기 불편해하는 인기 없는 진실, '죄'를 정직하게 '죄'라고 명명하며 그 실체를 드러낸다. 그는 오직 성경만이 삶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준다고 강조하며, 추악한 죄인들을 건져 내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 낸다.

현대인의 패부를 꿰뚫는 순도 높고 단단한 팀 켈러 설교의 원형!

오직 복음으로 우리 시대의 물음에 답하다!

이 책은 표류하는 영혼을 위한 닳아지, 복음이 내놓는 명징한 해답이다. 단순히 죄에 관한 신학적 정의를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적인 절망과 부조리에 정면으로 응답한다. 1990년대, 더없이 세속적이고 냉소적인 뉴욕커들의 교묘한 자기기만을 뒤흔든 팀 켈러의 논리적 서사를 고스란히 담았다. 당시 그가 전했던 시리즈 설교 "죄의 여러 얼굴"을 토대로 한 이 신작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그 밑바닥에서 불붙어야 할 단 하나의 소망인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를 이끈다. 죄가 단지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잠식하는 복잡한 실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영혼이 갈망하는 근본적 치유의 길이 열린다. 내가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를 직시할 때에야 나를 위해 예수가 해 주신 일의 위대함을 비로소 헤아릴 수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저자소개 | Timothy Keller, 1950~2023

맨해튼을 비롯해 미국 뉴욕 여러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리더머장로교회의 설립 목사. 팀 켈러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이며,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지성으로 성격과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읽어 준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도자와 회의론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뉴스위크>에서 "21세기의 C. 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변증가로도 영향력 있는 행보를 보였다.

팬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나 자랐고, 버크넬대학교, 고든콘웰신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수학했다. 대학시절 IVF 활동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학교를 갓 졸업한 스물네 살의 나이에 버지니아 웨스트호프엘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1984년부터는 5년간 교묘인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강단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한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만들어지고 집약되는 '도시 지역' 선교에 헌신했다. 이 사역으로 전 세계 100개 이상 도시에 4300여 개 교회의 개척을 도왔다. 2017년부터는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들의 도시 전도와 사역을 돕는 단체인 리더머시티투시티(Redeemer City to City)에서 섬겼다. 책장암으로 투병하던 중, 2023년 5월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한다>, <팀 켈러, 결혼을 말한다>, <일과 영성>, <탕부 하나님>, <내가 만든 신> 등 40권에 달하는 저서가 있으며, 29개 언어로 번역되어 1,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 | 노승주 저자(글) | 리바이벌북스 | 2026년 5월 22일

책소개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왜 '혐오', '극우', '시대착오'라는 낙인 속에서 점점 침묵하게 되었는지를 신학적-철학적-세계관적 차원에서 차분히 짚어낸 책이다.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내용의 구조는 '진단 → 해부 → 대안 → 실천'의 논리적 흐름을 따른다. 제1부는 왜 교회가 '극우'로 취급당하는지에 대해 현상을 진단한다.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 '공공의 적'이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제1부를 읽고 나면, 독자는 "왜 우리가 혐오 집단으로 몰렸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제2부는 법과 문화, 세계관 전쟁의 철학적 뿌리를 해부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이 단순한 '문화 전쟁'이 아니라 '세계관 전쟁'임을 밝히고, 차별금지법-낙태-성과 가정의 해체-회개와 정의 등의 주제를 성경적으로 분석한다. 제3부는 신학적 대안을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적 공동체 개념을 통해 제시한다. 제3부를 읽고 나면, 독자는 세속적 정의와 성경적 정의의 차이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제4부는 실천적 가이드이다. 일상에서의 분별력, 대화 기술, 다음 세대 신앙 전수 등을 다룬다. 제4부를 읽고 나면, 독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저자소개 | 노승주

세상의 거센 사상적 도전 앞에서 조국 교회를 지켜내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이자 연구자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마치고, 동 일관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Th.M.) 과정을 밟으며 바른 신학의 뼈대를 세우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 윤리학, 변증학을 기반으로 시대정신을 분석하는 작업에 주력해 왔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행교회에서 사역하며, 리폼드미니스트리(Reformed Ministry)의 대표로서 바른 신학의 결여라는 시대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학을 바탕으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 예민한 시대적 이슈들에 맞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강사이자 교리-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또한, 유튜브 채널 <신학과신앙>을 운영하며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정통 개혁 신학을 성도들의 일상적 무기로 버려내는 사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저서로는 『7가지 핵심 키워드로 읽는 개혁신학』, 『소독과 고모라, 그리고 대한민국』 등이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우 리 부 서를 **소** 개합니다 | 일곱 번째 약제부

Always here for you

**“환자 중심 전문약료를 실현하는 신뢰받는
병원약사”로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약제부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조제하며, 최적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흔히 약제부 하면 ‘조제’와 ‘복약 상담’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환자 안전을 위해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든든한 치료 동반자, 약제부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01 일반 조제계

"365일 쉬지 않는 처방 감사와 환자 맞춤형 복약 상담"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처방 검토부터 조제, 투약,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환자가 안전하고



입원 및 외래 환자 처방 감사·조제·투약

모든 의약품은 ‘처방 감사’와 ‘조제’ 과정을 철저히 거칩니다. 환자의 상태와 병력을 고려해 약물의 적절성, 용량·용법, 상호작용 등을 꼼꼼히 검토하며,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약이 투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복약상담 및 특수복약 서비스

조제 후에는 환자가 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층 투약구 상담뿐만 아니라 약사가 병실을 직접 방문하여 흡입기, 항응고제, 항암제 등 특수 약물의 투약법, 부작용과 약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맞춤형 개별 복약 상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월 100건 이상 시행되는 항암 복약 상담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의 불안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며 정서적 지지까지 더하는 약료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통해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 중인 고령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점검과 조정, 복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 과정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확인하고, 부작용·약물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개인별로 최적의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02 특수 조제계

"고도의 전문성으로 만드는 환자 안전과 다학제 협업"

항암제 혼합조제, 소아 TPN 조제, NST(영양지원팀) 자문, 혈액종양내과 팀 회진 및 항암 복약 상담 등을 담당합니다.



무균조제 (항암제 & TPN)

항암제 및 면역 저하 환자를 위한 특수 약물 주사제, 정상적인 영양 섭취가 어려운 신생아를 위한 맞춤형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을 조제합니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엄격한 무균 조제 환경에서 전신 보호구 등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고 조제하며, 환자화 조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NST (영양지원팀 Nutritional Support Team)

NST 약사로서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의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약물 및 영양 처방을 검토·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실 회진에 참여하여 환자별 영양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약물요법을 마련하여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최적의 치료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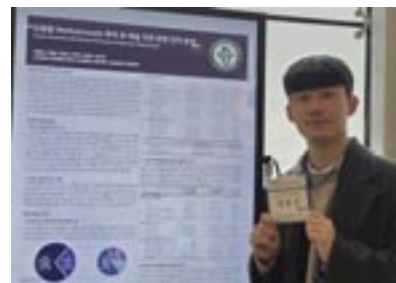
기타 팀 지원 업무

- ▷ **전담 약사 활동**: 혈액종양내과에서 활동하며, 주 1회 의료진과 함께 회진에 참여합니다.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약물요법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과정까지 처방 검토, 중재, 자문을 수행합니다.
- ▷ **다학제위원회 활동**: 간사로 참여하여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Off-label use)' 등의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관리하며, 사후평가 정보 수집 및 보고 관련 업무를 여러 의료진과 협력하여 수행합니다.

03 약무정보계

"신뢰받는 의약품 수급과 임상 지원 및 학술 연구"

원내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유용한 학술 정보를 분석·제공하여 임상 현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



안정적인 약물·행정 관리, 약무실

병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재고를 유지, 관리합니다. 식약처, 보건소 등 관련 행정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약품 안전 관리 가이드를 준수하며 공공의료 감시체계를 철저히 운영합니다.

전문적인 약품 정보 제공, 약품정보실

분기별 약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적절한 의약품의 사용 지침 및 약제 정책을 마련하고, 약품 Q&A 대응, 의약품집 및 뉴스레터 발간 등 전문적인 약품 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합니다.

체계적인 임상 지원 업무

CPCS 임상약동학 자문	ADR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	ASP 항생제 사용 관리팀
Vancomycin 등 치료 농도 범위가 좁아 정밀한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대해, 혈중 농도를 분석하여 최적의 개별 투여 계획을 의료진에게 자문합니다.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인과관계를 평가하여 약물 사용의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원내 임상시험이 규정에 맞춰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진행되도록 전용 의약품의 보관, 조제, 공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중재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교육 및 미래 연구 활동

교육	전문약사 수련	연구 및 학술활동
원내 의료진 교육은 물론 미래의 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약학대학 학생 실무 교육을 시행합니다.	현재 감염, 노인, 심혈관, 정맥영양, 종양 등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 활약하는 10명의 국가 공인 전문약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약사 수련기관으로서 교육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병원약사회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종양, 영양(NST) 등 다양한 국내외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구두 및 포스터로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약제부는 단순히 약물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치료 전 과정에 함께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반자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약제부는 약의 전문가로서, 약제 업무의 질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 전도, 교육이라는 병원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환자 곁에서 보낸 축복의 시간」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글 | 서혜정 부장 ☒ 간호부



1986년 7월 입사하여 약 40년이라는 긴 임상생활을 마무리하고, 올해 6월 말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친정아버님의 권유로 간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저에게 기독교 재단인 복음병원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친구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인 목표로 입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환자를 돌보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드릴 때 큰 기쁨을 느꼈고, 질병이 치유되어 퇴원하시는 모습을 보며 간호사의 역할이 제게 잘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 3개월 전 난소종양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진통제 투여가 늦어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겪었고, 이후 “환자 곁에서 간호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생활을 하는 동안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언제나 환자분들의 요구와 문제를 잘 해결해 드리고자 애썼습니다.

첫 근무는 일반외과 병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환자 수에 비해 간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밥 먹는 시간조차 미안할 만큼 바쁘게 일했습니다. 신규 시절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첫 수간호사 선생님과 선배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도움이 있었기에 임상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업무로 3~5년 주기로 권태기가 찾아올 때쯤이면 어김없이 부서 이동이 있었고,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찾자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간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외과계와 중환자실 등 다양한 부서에서의 근무와 연구





경험은 간호의 질 향상과 교육자료 및 지침서 개발, 의료기관 인증평가 준비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간호사가 되면서 선배님의 권유와 조언으로 간호부 업무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함께 협력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던 선후배 동료들이 있었기에 점점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무 후 잠시 가졌던 QT모임과 선교훈련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나 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님들 덕분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국내외 의료봉사와 찬양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병실 찬양 시간에 환자분들께서 박수를 치며 함께해 주실 때면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와 의정 갈등을 지나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국가정책을 신속히 수용하고 혁신해야 하는 현실에 병원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 평가를 앞둔 이 시기에 퇴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40년의 임상생활과 간호부서장이라는 책임 있는 자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해 준 선후배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준 여

러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간호의 질 향상과 전문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지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뿐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어려웠던 친정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고,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리고 친척과 지인들의 부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장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상간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던 많은 선배님들과 지지해 준 후배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후배님들이 준비해 준 따뜻한 영상 인사와, 무딘 저를 아름답게 꾸며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준 간호부 식구들, 그리고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누려보는 긴 휴가 시간을 보내며, 지난 40년 동안 한 기관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감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몸담았던 이곳이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2026년 4월 16일



2026년 3월 ~ 2026년 5월

내원객이 칭찬해주신 **우리 병원 친절직원**

1일 낮병동 | 332병동 | 341병동 | 352병동 | 361병동 | 362병동 | 503병동 | 504병동 | 507병동 | 508병동 | 509병동 | 510병동 | 511병동 | 525 병동(호스피스) | 내분비내과 외래 | 방사선종양치료실 | 방사선종양학과 외래 | 산부인과 외래 | 소화기내과 외래 | 수술실 | 심장내과 외래 | 안과 외래 | 원목실 | 응급실 | 인공신장실 | 입퇴원계 | 재활치료실 | 주사실 | 차량계 | 회복실

강미나 간호사(위장관외과) | 강민경 간호사(504병동) | 강수환 교수(비뇨의학과) | 강희원 임상병리사(채혈실) | 고경은 간호사(피부과) | 고나희 간호사(509병동) | 고택용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 공다은 간호사(504병동) | 구남이 간호사(1일 낮병동) | 권수정 간호사(인공신장실) | 권수진 간호사(351병동) | 권정옥 간호사(508병동) | 김구상 교수(유방외과) | 김근태 교수(류마티스내과) | 김기수 임상병리사(채혈실) | 김대현 전공의(교육수련부) | 김도윤 간호사(351병동) | 김두식 교수(마취통증의학과) | 김명연 간호사(외래계) | 김미연 간호사(508병동) | 김민경 간호사(유방외과) | 김민주 간호사(혈액종양내과) | 김민하 주임(재활치료실) | 김선경 주임(원무부) | 김세라 간호사(전담간호사계) | 김아리 간호사(외래계) | 김영나 간호사(류마티스내과) | 김영대 목사(원목실) | 김영선 수간호사(주사실) | 김영식 교수(응급의학과) | 김은아 간호사(전담간호사계) | 김재현 교수(소화기내과) | 김정임 간호사(내분비내과) | 김주민 간호조무보조사(간호조무보조사계) | 김지영 간호사(351병동) | 김지현 간호사(509병동) | 김진선 사원(미화부) | 김한주 간호사(성형외과) | 김현석 교수(정신건강의학과) | 김현아 간호사(성형외과) | 김현정 간호사(352병동) | 김현지 간호사(361병동) | 김혜경 수간호사(351병동) | 김혜란 간호사(주사실) | 김효진 간호사(전담간호사계) | 노다운 간호사(WOCN) | 노정현 간호사(504병동) | 라보배 간호사(대장항문외과) | 류경은 간호사(509병동) | 마미경 간호사(간담체내과) | 마선영 교수(방사선종양학과) | 문민지 간호사(507병동) | 박경란 교수(방사선종양학과) | 박미선 간호사(507병동) | 박보영 간호사(외과계중환자실) | 박선민 간호사(유방외과) | 박선자 교수(소화기내과) | 박세연 간호사(509병동) | 박소민 간호사(342병동) | 박아림 간호사(심장내과) | 박영미 수간호사(1일 낮병동) | 박은혜 간호사(류마티스내과) | 박이레 간호사(509병동) | 박지선 간호사(362병동) | 박찬우 사원(보안팀) | 박희규 방사선사(핵의학검사계) | 반롤리 간호사(351병동) | 배수영 간호사(351병동) | 배연주 간호사(352병동) | 서광일 교수(간담체내과) | 서수림 간호사(507병동) | 서예린 간호사(351병동) | 성유진 간호사(511병동) | 송은지 간호사(504병동) | 송지민 간호사(심장내과) | 신금아 간호사(WOCN) | 신소정 간호사(511병동) | 신현정 수간호사(504병동) | 심현지 간호사(510병동) | 안예지 간호사(352병동) | 안태현 간호사(510병동) | 양소원 간호사(주사실) | 양인자 수간호사(509병동) | 연구민 교수(소아청소년과) | 염가현 간호사(504병동) | 오영림 교수(산부인과) | 원현지 간호사(505병동) | 유승용 물리치료사(재활치료실) | 유제상 교수(방사선종양학과) | 육찬서 간호사(전담간호사계) | 윤기쁨 간호사(525병동 호스피스) | 윤정연 주임(QPS실) | 이다겸 간호사(심장검사실) | 이동욱 간호조무보조사(간호조무보조사계) | 이미림 간호사(진료협력계) | 이미화 간호사(외과계중환자실) | 이상 간호사(342병동) | 이수정 간호사(마취통증의학과) | 이승훈 교수(대장항문외과) | 이옥자 간호사(주사실) | 이윤지 간호사(510병동) | 이은미 교수(혈액종양내과) | 이은선 간호사(504병동) | 이인걸 간호사(비뇨의학과) | 이정민 간호사(소화기내과) | 이정욱 교수(간담체내과) | 이주아 간호사(352병동) | 이준호 임상병리사(진단검사외과) | 이지민 간호사(알레르기내과) | 이진영 간호사(351병동) | 이진형 교수(신경과) | 이채은 간호사(361병동) | 이태화 교수(산부인과) | 이태영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 이호임 간호사(342병동) | 임상현 사원(원무부) | 임성일 교수(심장내과) | 임유경 간호사(332병동) | 장강진 간호사(PMN) | 장경희 간호사(정형외과) | 장윤미 간호사(주사실) | 장태원 교수(호흡기내과) | 전유리 간호사(이비인후과) | 전화평 간호사(507병동) | 정명진 간호사(PMN) | 정미라 주임(진료협력계) | 정선미 간호사(352병동) | 정세영 간호사(유방외과) | 정연순 교수(신장내과) | 정원길 교수(완화외과) | 정은지 간호사(342병동) | 정현 수간호사(510병동) | 조성호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 조수민 교수(간담체내과) | 조유진 사원(보안팀) | 조은지 간호사(간담체내과) | 조은혜 간호사(351병동) | 조하은 간호사(504병동) | 조현세 간호사(511병동) | 조혜진 간호사(511병동) | 조희지 간호사(유방외과) | 주영숙 주임(진료협력센터) | 주희경 간호사(소화기내시경 검사실) | 진자영 간호사(505병동) | 차태준 교수(심장내과) | 천정연 간호사(509병동) | 최미경 간호사(504병동) | 최보미 간호사(507병동) | 최복연 수간호사(361병동) | 최봉준 간호사(PMN) | 최수빈 간호사(혈액종양내과) | 최순복 간호조무사주임(511병동) | 최지혜 간호사(505병동) | 최진혁 교수(유방외과) | 최향숙 수간호사(508병동) | 최효선 간호사(341병동) | 최희훈 사원(원무부) | 추주희 간호사(외래계) | 한만호 주임(간호조무보조사계) | 합기주 사원(보안팀) | 허정호 교수(심장내과) | 홍성경 간호사(525병동 호스피스) | 홍유라 교수(소아청소년과) | 홍정순 주임(건강증진센터) | 홍해빈 간호사(525병동 호스피스)



최근 3개월 병원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와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화합과 소통의 공간 '칭찬 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환자와 병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 모습, 닮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일터를 사랑하고, 환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폈던 초대병원장 故 장기려 박사님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습니다! 칭찬릴레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바랍니다.

병리와 전요한 교수님 추천

언제나 묵묵히 환자들의 곁을 지키시는 혈액종양내과 **이호섭** 교수님을 이번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최전선에서 가능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짊어지고 최선의 치료를 고민하는 모습에서 울림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교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병원이 더욱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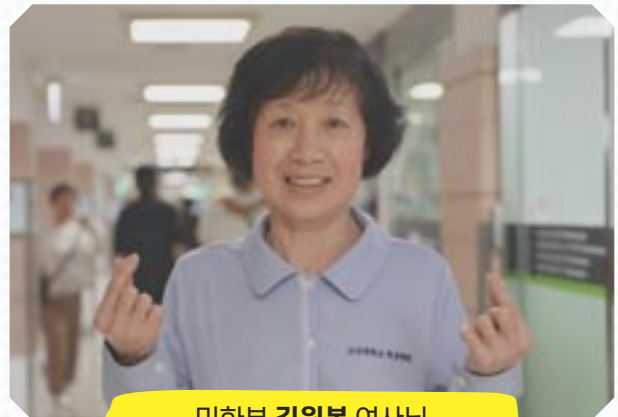


혈액종양내과 **이호섭** 교수님

뜻깊은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교직원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따뜻한 응원을 받게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의 곁에서 진심을 다하는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좋은 마음과 응원이 이어지는 칭찬 릴레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보안팀 이진우 선생님 추천

5동 1층을 늘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미화부 **김원복** 여사님을 추천합니다. 병원을 마치 내 집처럼 아끼며 언제나 깨끗하고 정갈하게 관리해 주십니다. 밝은 모습으로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 덕분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랜 건물 곳곳에도 늘 정성과 손길이 느껴져 병원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모습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신을 더욱 빛나게 해주시는 김원복 여사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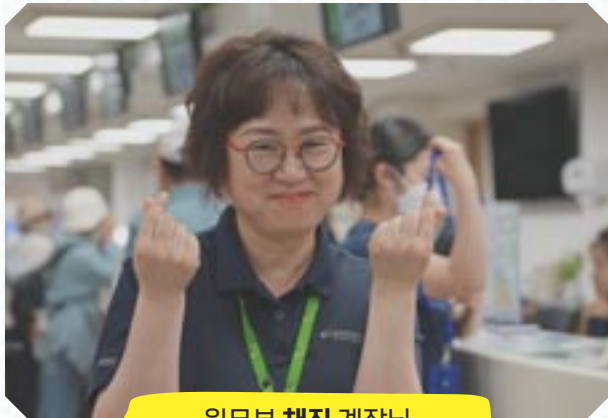


미화부 **김원복** 여사님

칭찬 릴레이에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신 이진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마주칠 때마다 웃는 얼굴로 인사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추천해 주시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매일 건네는 작은 인사 하나도 동료들에게는 따뜻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마주치는 분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기분 좋은 미소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모두가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친절한 병원을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510병동 정현 수간호사 선생님 추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원무부 **채진** 계장님을 다음 칭찬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병동 업무를 하다 보면 입.퇴원계와 많은 통화를 하게 되는데, 바쁜 상황에서도 항상 밝은 목소리로 질문에 성의 있게 응대해 주시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한 입원 업무 진행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진 계장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원무부 **채진** 계장님

저를 추천해 주신 정현 수선생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동료와 환자분들께 순결한 진심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보내주신 격려에 힘입어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칭찬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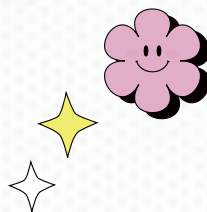
소화기내과 **이정민** 간호사 선생님 추천

저는 직업환경의학과 **김은숙**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밀려오는 검진과 문의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웃음을 잃지 않고 안내해 주시며, 무엇보다 병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깊은 사랑과 열정의 김은숙 선생님은!! 고신의 또 숨어 있는 천사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이 넘치는 김은숙 선생님을 칭찬 릴레이에 추천드립니다!!!



직업환경의학과 **김은숙** 선생님

누구보다 먼저 밝은 웃음과 격려로 인사해 주시는 고신의 천사 이정민 선생님의 추천에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칭찬을 받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검진팀 모두의 노고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더욱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빠른 검사 진행 속에서 수검자분들과의 정서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순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 오차 없는 검사, 공감하는 안내, 신뢰받는 검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 O C U S V I E W

고신대복음병원-NKCL바이오그룹, 차세대 면역세포치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신대복음병원이 2월 9일 ㈜NKCL바이오그룹(대표이사·회장 신동화)과 '차세대 면역세포치료 활성화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차세대 면역세포치료 분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연구부터 임상 적용까지 연계 가능한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면역세포치료 기술의 고도화와 실용화를 통해 미래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신대복음병원은 다년간 축적해 온 임상연구 역량과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면역세포치료 연구의 임상적 검증과 적용을 담당하고, NKCL바이오그룹은 관련 NK세포 배양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토대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6.02.09.]

고신대복음병원, 환자·보호자 가족의 정성 담긴 발전기금 1억 원 기탁받아



고신대복음병원은 3월 3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병원 발전을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부는 현재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배호근 환자와 그의 아내 박진숙 씨 가족이 합심해 결정한 것으로, 특히 1년 4개월 전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난 박진숙 씨의 여동생 고(故) 박미숙 씨를 기리는 마음이 담겨 있어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생전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고 박미숙 씨는 의미 있는 나눔에 대한 마음을 늘 품고 있었다. 이에 남겨진 가족들은 평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암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고신대복음병원의 모습에 깊은 신뢰를 느껴왔으며, 고인의 뜻을 가장 가치 있게 실현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한뜻으로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 기부자 박진숙 씨는 "동생이 떠나며 남긴 소중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지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민해 왔다"며 "남편 역시 현재 병원에서 암 투병을 하며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함께 고통받는 다른 환우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진료받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6.03.03.]

'임상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센터' 확장 개소... 실전형 필수 의료 교육 인프라 구축



고신대복음병원은 3월 4일 의료진의 숙련도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한 '임상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센터'를 확장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확장 개소된 임상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센터는 실제 병원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통합 실습형 교육 공간이다. 센터에는 실제 환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교하게 구현하는 성인 고충실도 시뮬레이터 'SIMMAN'을 비롯해 심장초음파용 시뮬레이터,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복강경 시뮬레이터 및 미세수술 모듈 세트, 동정맥 채혈 모형 등 필수 의료 술기를 익힐 수 있는 최첨단 장비들이 대거 확충됐다. 특히 실습 직후 교육생들이 자신의 진료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토론할 수 있는 최신 디브리핑(debriefing) 시스템을 도입해 단순 실습을 넘어 체계적인 피드백과 성찰이 가능한 선진 교육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번 센터 확장 개소를 통해 전공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임상 유형별 반복 교육을 실시해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2026.03.04.]

F O C U S V I E W

고신대복음병원-고신대학교-부산교육청, '꿈담기 진로체험'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의 핵심인 '꿈담기(학생들의 꿈을 담아내는 기업) 프로그램은 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전문 직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2026년도 우수진로체험기업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병원이 보유한 첨단 의료 인프라를 교육 현장에 전격 개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보건·의료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부산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 의료 현장 견학, 모의실습, 전문가 멘토링 등 현장 중심의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신대학교는 대학 내 전문 인력을 투입해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며, 부산시교육청은 참가 학생 모집과 프로그램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16개 참여 기관과 함께 부산 지역 진로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10.]

고신대복음병원, 부울경 최초 식도 고난이도 내시경 시술 240례 달성



고신대복음병원 소화기내과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최초로 전신마취하 고난도 식도 내시경 시술 240례를 달성하며 식도 질환 치료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식도이완불능증 치료를 위한 경구내시경근절개술(POEM) 103례와 식도암 및 식도 종양에 대한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 112례를 포함한 것으로, 고난도 식도 질환 분야에서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이 집계한 전신마취하 식도 내시경 시술 세부 현황에 따르면 POEM 103례, ESD 112례를 비롯해 상부위장관 상피하종양 절제, 식도 게실 치료, 복강경·내시경 협동수술(LECS) 등 기타 시술 25례로 총 240례를 기록했다. 식도는 벽이 얇아 시술 중 출혈이나 천공, 기도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의 기술과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등과의 긴밀한 다학제 협업이 필수적이다. 병원은 이를 위해 진단부터 시술 후 관리까지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구축했다. 특히 2007년 국내 최초로 고해상도 식도내암검사를 도입한 데 이어, 2021년 부울경 최초로 식도 팽창성 검사(EndoFLIP)를 도입해 환자 개별 맞춤형 정밀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2026.03.18.]

호흡기내과 장태원 교수, '제16회 결핵예방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호흡기내과 장태원 교수가 3월 24일 열린 제16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이번 포상은 결핵 예방 및 퇴치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장태원 교수는 그간 결핵 환자의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뿐만 아니라 민간-공공협력(PPM) 결핵 관리 사업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결핵 발생을 감소와 완치를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총 4명의 정부포상 대상자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로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로, 고신대복음병원의 우수한 의료 역량과 공공보건 기여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 이날 시상식은 '건강한 국가, 함께해요 결핵 ZERO'를 슬로건으로 내빈 입장, 유공자 포상, 기념 강연 및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으며, 결핵 관리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2026.03.25.]

F O C U S V I E W

고신대복음병원, 에코델타시티 미래형 스마트병원 조성전략 간담회 개최



고신대복음병원은 3월 27일 오전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전망대 '델타루'에서 '에코델타시티 미래형 스마트병원 조성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에코델타시티 내 조성될 스마트병원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학계·정부·글로벌 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종순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스마트병원 조성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병원장은 “단순한 병원 신축을 넘어 대학, 연구소, 글로벌 기업이 실시간으로 협력하는 데이터 생태계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스마트 공공의료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스마트빌리지와 연계한 환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AI 기반 정밀 진단 시스템 도입, 산·학·연·병 연계 데이터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에코델타시티의 인프라 강점을 바탕으로 고신대복음병원이 세계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6.03.27.]

아버지의 병상에서 시작된 감사” 늘봄내과 이도경 원장, 1천만원 기부



늘봄내과 이도경 원장이 고신대복음병원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가족의 투병을 함께했던 기억과 의료인의 사명이 어우러진 의미 있는 나눔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원장의 부친은 과거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와 따뜻한 돌봄은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됐다. 이도경 원장은 “아버지께서 투병하시던 시간 동안 의료진의 진심 어린 치료와 배려가 가족에게 큰 힘이 됐다”며 “그때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병원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곳으로 계속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의과대학 시절 장기려 박사를 여러 차례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은 인연을 소개하며 “장기려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나눔의 삶은 지금도 제 진료 철학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그 정신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2026.03.27.]

이비인후·갑상선두경부외과 이형신 교수, 대한기관식도과학회 창립 60주년 학술대회 ‘최우수상’ 수상



이비인후·갑상선두경부외과 이형신 교수가 4월 4일 이대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기관식도과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유연재 가운데 학문적 가치가 가장 높은 논문으로 선정된 결과다. 수상 연구는 ‘기관 내 광생체조절치료를 이용한 기관절개술 후 초기 상처 회복 조절 동물연구(Endotracheal Photobiomodulation for Modulating Early Wound Healing After Tracheostomy: A Porcine Model)’로, 기관협착 및 기관절개술 후 육아조직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신 교수는 강현욱 교수, 이예찬 박사와 함께 10년 이상 광치료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관절개 튜브 내에 삽입한 저출력 레이저 기기를 통해 기관절개창의 과도한 섬유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광치료 후 조직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단위 변화를 분석해 광치료 기전 규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6.04.06.]

F O C U S V I E W

산부인과 김은택 교수, 제41차 대한부인종양학회 ‘신포호월 우수 학술상’ 수상



산부인과 김은택 교수가 4월 3일 열린 제41차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신포호월 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자원 국가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수상 연구는 ‘SCOPE: A Feasibility Study of Smartphone-Based Cervical Cancer Screening in Eswatini’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국가에서 스마트폰 기반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한 임상 연구다. 김은택 교수를 포함한 고신대복음병원 연구팀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지역 3개 클리닉에서 여성 35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질확대경 검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고가의 전문 장비 없이도 자궁경부 전체 시야 확보와 우수한 영상 품질이 가능했으며, 고등급 병변 탐지 가능성도 확인했다.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신포호월 우수 학술상’은 부인종양학 발전에 기여한 학문적 가치가 높은 연구에 수여된다. 김은택 교수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스마트폰과 같은 보편적 기기를 활용해 효과적인 조기 진단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글로벌 보건 격차 해소와 디지털 헬스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6.]

프랑스 의료진도 찾은 고신대복음병원... 국제 의료교류 강화



고신대복음병원은 프랑스 발랑스 소재 Centre Hospitalier de Valence 이비인후과 Guillaume BUIRET 교수가 4월 13일 본원을 방문해 수술 및 외래 진료 과정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Guillaume BUIRET 교수가 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 권재환 교수의 연구 논문을 접한 뒤 수술 술기와 진료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직접 참관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방문은 권재환 교수의 수술 술기와 진료 시스템을 참관하고 양 기관 간 학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Guillaume BUIRET 교수는 수술 참관에 이어 외래 진료와 시술 과정 전반을 살펴봤다. 이날 문수진 교수도 함께 참석해 국내외 의료진 간 협력과 학술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권재환 교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의료기술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의료 수준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15.]

고신대복음병원-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생애말기 대상자 삶의 질 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신대복음병원 완화의료센터와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가 생애 말기 대상자와 가족에게 총체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4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애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생애 말기 대상자의 증상 조절과 돌봄을 위한 실질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자문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 교류와 정보 교환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나아가 양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홍보에도 적극 협조하고,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6.04.22.]

F O C U S V I E W

‘정확한 환자확인’ 문화 정착 위한 2026년 1차 리더십 환자안전라운딩 실시



고신대복음병원은 4월 23일 2026년 첫 번째 ‘리더십 환자안전라운딩’을 실시했다. 이번 환자안전라운딩은 환자 안전의 기본이자 가장 핵심적인 과정인 ‘정확한 환자 확인’을 주제로 진행됐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 확인 절차가 표준 지침에 따라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료진과 직접 소통하며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라운딩에는 최중순 병원장을 비롯해 간호부 및 QPS실 관계자 등이 참여해 검사실과 병동, 외래 등을 직접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간호사들과 함께 환자 확인 방법인 ‘개방형 질문’과 ‘정보 교차 확인’ 등이 진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주기적인 리더십 환자안전 라운딩을 통해 의료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6.04.23.]

고신대복음병원 재활의학과 동문회, 5,700만 원 발전기금 기부



재활의학과 동문회(회장 노경환)가 병원과 재활의학과 발전을 위해 총 5,7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고(故) 장기려 박사가 실천해 온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는 병원의 모습에 깊이 공감한 동문들의 뜻이 모이면서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어진 의정 사태 속에서 재활의학과는 환자 수 대비 의료진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진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러한 의료진의 헌신 속에서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에 동문들은 재활의학과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결정했다. 재활의학과 동문회 노경환 회장은 “고신대복음병원이 장기려 박사님의 정신을 실천하며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며 동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며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환자를 지켜낸 재활의학과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고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026.04.24.]

‘제7회 고신비만대사수술연구회(KOSMOS) 심포지엄’ 성료



고신대복음병원은 4월 25일 병원 6동 5층 대강당에서 ‘제7회 고신비만대사수술연구회(KOSMOS)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양의대, 성균관의대, 인제의대, 순천향의대 등 전국 각지의 비만·대사질환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참석해 최신 치료 지견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1년간 연구회를 통해 부울경 지역 비만·대사질환 환자 치료 발전에 헌신해 온 연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광현 대한비만학회 부울경지회(PKASO)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해 서경원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KOSMOS 연구회가 비만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며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회를 총괄해 온 서경원 교수는 김부경 교수에게 운영을 맡기며 연구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2015년 첫발을 땀 당시 수술 중심(Metabolic and Obesity Surgery)이었던 연구회가 이제는 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 개념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장됐다”고 강조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고도비만 및 대사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정교하고 개인화된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6.04.27.]

F O C U S V I E W

고신대복음병원, 부산 상급종합병원 최초 '대한적십자사 ESG실천병원' 가입



고신대복음병원이 부산 지역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최초로 대한적십자사의 'ESG실천병원'에 가입해 정기 후원을 이어가게 됐다. 'ESG실천병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정기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 구호 활동 등에 참여하는 제도다. 최중순 병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의료봉사를 이어왔지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긴급지원과 재난 구호, 취약계층 생활 지원 등 보다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신대복음병원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고(故) 장기려 박사가 초대 병원장을 맡았던 의료기관으로, 설립 이후 70여 년간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위한 섬김’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2026 INUE 병원 평가'에서 고신대복음병원은 암 중증질환 분야(대장암·위암·유방암·폐암) 부산·울산·경남 지역 통합 1위를 차지했다. 박선영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사무처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ESG 실천에 동참해 준 고신대복음병원에 감사드린다”며 “병원의 소중한 후원이 어려운 이웃과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인도주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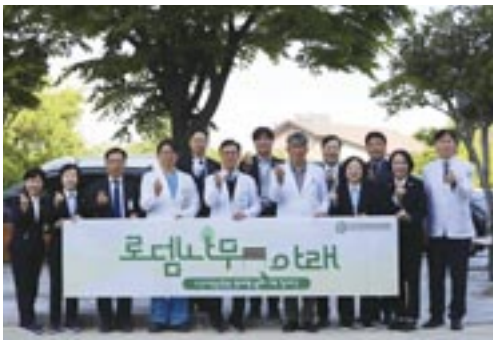
'2026 진료협력병원 워크숍 및 최신치료 세미나' 성료



고신대복음병원은 4월 29일 부산·경남 지역 80여 개 협력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진료협력병원 워크숍 및 최신치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에 따른 진료협력 체계 고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변화하는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협력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협력 모델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어 열린 최신치료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 전문의들이 최신 진료 트렌드와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중심의 사례 위주 강의로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전문 의뢰와 협력 진료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환자 중심의 연속성 있는 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구조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신속 의뢰·진료·회송 시스템(Fast-Track)을 기반으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2026.04.30.]

5월 가정의 달 맞아 '로댐나무 아래' 기부 벤치 조성



고신대복음병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병원을 찾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전하는 기부 벤치 '로댐나무 아래'를 운영한다. 이번에 조성된 '로댐나무 아래' 벤치는 여러 기부자의 자발적인 후원과 참여로 만들어진 '나눔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병원 5동 앞에 설치된 벤치는 투병 생활로 지친 환우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벤치 이름인 '로댐나무 아래'는 성경 속 지친 엘리야가 로댐나무 아래에서 새 힘을 얻은 것처럼,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회복과 희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각 벤치에는 기부자들의 이름과 응원의 메시지가 새겨진 명판이 부착돼 기부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고신대복음병원 관계자는 “여러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모여 만들어진 '로댐나무 아래' 벤치가 환우들에게는 희망을, 기부자들에게는 보람을 전하는 선순환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따뜻한 의료 환경 조성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F O C U S V I E W

어린이날 기념 '중증 환아 위한 솜사탕 나눔 및 완화의료 캠페인' 개최



고신대복음병원은 5월 4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중증·희귀난치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아와 보호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어린이날 홍보 캠페인 및 솜사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과 임목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기 입원과 치료로 지친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의 기쁨을 전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목실장이 직접 만든 솜사탕을 환아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웃음을 나눴다. 또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안내 리플렛을 배부해 완화의료에 임종 돌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단 초기부터 치료 전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영적 고통을 완화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임을 알리는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공성김 교수와 정원길 교수는 환아와 보호자들을 격려하며 의료진 및 내원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진들은 "작은 나눔이 환아와 가족들에게 치료 과정 속 짧은 휴식과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신대복음병원은 2014년 완화의료 병동 개설 이후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2026.05.06.]

완화의료센터, 올바른 진통제 사용 돕는 '암성통증 캠페인' 실시



고신대복음병원은 5월 21일 장기거기념암센터 로비에서 완화의료센터 주관으로 말기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암성통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암 환자들이 겪는 극심한 통증을 적절한 진통제 사용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알리고, 안전하게 통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복용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서방정, 설하정, 구강정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성 진통제 복용 방법과 마약성 패치의 정확한 부착 방법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통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 리플렛과 홍보 물품이 내원객들에게 배부됐다. 특히,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가 마약성 진통제 복용 및 패치 부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환자가 퇴원 후 가정에서 돌아가서도 스스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증 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고신대복음병원 완화의료센터는 말기암 환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이적인 입원형·가정형·자문형·소아청소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2026.05.21.]

패혈증 극복한 12세 환아 가족 발전기금 전달



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이주원(12세) 군과 가족이 병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3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주원 군은 지난해 원인 불명의 고열 증상으로 대학병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기관에 연락했으나 병상 및 진료 여건 등의 이유로 신속한 진료 연계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군은 심한 패혈증으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으나, 약 두 달간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했다. 이후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주원 군 가족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됐다. 주치의였던 연구진 교수는 "어려운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회복한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섭 씨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정성껏 치료해주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병원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만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2026.05.22.]

• 진료를 시작합니다 •



가정의학과 **박은주** 교수

+ 전문진료분야

기능의학, 임상영양학,
고용량비타민요법,
금연, 비만



재활의학과 **정호중** 교수

+ 전문진료분야

척추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재활의학과 **전향배** 교수

+ 전문진료분야

뇌신경재활,
척추손상재활,
근골격계



내분비내과 **권수경** 교수

+ 전문진료분야

내분비내과
(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김동영 교수

+ 전문진료분야

고난도 부비동 수술,
부비동 종양, 부비동 질환,
알레르기 비염, 후각장애,
수면무호흡질환, 코피,
기능적 코성형, 비골골절,
편도질환



유방외과 /
두경부갑상선 내분비외과
강철민 교수

+ 전문진료분야

유방암 일반/로봇수술, 유방 미세
석회 조직검사(입체정위생검),
양성유방질환의 비수술적치료
(진공보조흡인절제-맘모돌)
갑상선암 수술, 갑상선 조직검사
(세침흡인검사, 중심침생검),
갑상선결절의비수술적치료
(에탄올주입술, 고주파절제술)



방사선종양학과 **이수용** 교수

+ 전문진료분야

고식적 방사선 치료



영상의학과 **박정구** 교수

+ 전문진료분야

복부영상의학
(상복부·하복부 영상진단)



비뇨의학과 **백재진** 교수

+ 전문진료분야

전립선, 요로결석

호흡기내과 **김도섭** 교수

+ 전문진료분야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소화기내과 **이승현** 교수

+ 전문진료분야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술), 용종(선종) 및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용종
절제술), 일반 소화기 진료

소화기내과 **최준영** 교수

+ 전문진료분야

검사목적의 내시경

소화기내과 **안영신** 교수

+ 전문진료분야

검사목적의 내시경

소화기내과 **신용섭** 교수

+ 전문진료분야

검사목적의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가정의학과	최종순	화	월,목	비타민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요법, 자율신경실조증, 만성피로클리닉
	공은희	월,수,목	수	비만, 임상영양, 금연, 성인예방접종
	강지훈	해외연수		자율신경주사, 만성두통, 암 경험자 평생 건강 관리, 성인예방 접종, 노인의학 근골격계 통증클리닉, 금연클리닉, 유전체 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김미수	금	월,화,금	가정의학, 기능의학, 비만영양대사, 만성피로클리닉, 금연클리닉, 성인예방접종, 건강증진
간담도췌장외과·이식외과	박은주		수,목	기능의학, 임상영양학, 고용량비타민요법, 금연, 비만
	신홍훈	월,목	월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최영일	화,금	화	간이식, 간담도, 혈관,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간담췌클리닉
	문형환	수	수,목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희귀질환 클리닉 :매주 수요일 오후
	조지훈	수	화,금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간담췌내과	오영도		수	간담췌외과 일반진료,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상욱	월,수	월,수	간,담도,췌장 질환(간암, 간경화증, 급,만성 간염)
	서광일	화,목	화,목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정욱	월,수,금	목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감염내과	조수민	화,목,금	화,금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허재준		화,금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내분비내과	진솔	수		원내감염, 에이즈(AIDS), 여행자감염, 면역저하자 감염
	이수진	월,목	화	원내감염, 에이즈(AIDS), 여행자감염, 면역저하자 감염
대장항문외과	김부경	화	월,수	비만,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 부신
	박성우	월,수,목	화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 부신
	권수경	목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두경부갑상선내분비외과	박태훈	월,화,금	목,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 부신
	안병권	화,수		대장암, 직장암, 대장직장클리닉
	이승현	월	월,수	대장암, 직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류마티스내과	이승현	목,금	화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문예진		목,금	대장암, 직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마취통증의학과	김구상	수		로봇갑상선수술(경구, 액와), 갑상선암, 고주파열치료, 조직검사, 세침검사, 고주파열치료클리닉
	강철민		화	두경부갑상선 내분비외과 일반진료
방사선종양학과	김근태	화,수,금	월,금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척추증, 루푸스, 통풍, 퇴행성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타트병, 관절 초음파클리닉, 희귀질환 클리닉 :매주 금요일 오전
	김윤경	해외연수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척추증,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타트병, 관절 초음파클리닉, 희귀질환 클리닉 :매주 금요일 오후
	류시정	월,목		통증관리
방사선종양학과	김두식	화	화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강동희	금	금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지욱	수	수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비뇨의학과	박경란	수,목	화,목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화,수	월,수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유제상	화	화	두경부암, 폐암, 흉선암, 식도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암성통증센터 진료: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전/오후
산부인과	류현열	월,수		우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종양클리닉
	최성	화,목	월,목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전립선클리닉, 요실금클리닉
	김택상	수	월,수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성형외과	강수환	화,목	화	로봇수술, 비뇨기암, 결석
	백재진	월	목	전립선, 요로결석
	이태화	월,수,목	월	부인암, 부인종양, 자궁근종,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소아청소년과	오영규	월,목	월	고위험 임신, 조산, 모체 태아 의학, 일반 부인과 진료
	윤항구	화,금	수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산부인과 질환 로봇 수술센터
	강태경	수,목	목	부인종양, 부인과 내분비학(월경이상, 폐경, 다낭성 난소증후군), 내시경수술
소화기내과	김은택	화,금	수	부인질환(심부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탈출증), 부인종양, 부인암, 부인암 유전상담, 폐경, 로봇수술, 내시경수술(부인암 분과전문의)
	박진형	월	월,수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이형석	수,금	수	피부암, 유방재건, 두경부재건, 눈성형, 소아성형, 당뇨발, 욕창
소화기내과	김은수	화	화,목	유방재건(자가조직/임플란트), 유방암 수술 후 재건 및 빈대속 유방 성형, 안면 골절 및 외상, 피부종양, 상처 치료
	홍유라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이정현		월,수,목	성장클리닉(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상질환(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칼슘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소화기내과	연규민	화,수	금	소아신경질환(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섬김	월,목,금	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원하의로
	최수운	해외연수		소아소화기영양분과(소아소화기질환(위장장애, 간담췌장애),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소화기내과	박선자	월,수	월,화	응중(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소화기암, 진행성위장자 항암치료,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위 및 대장의 상피아병변(내시경초음파), 위장관 말초림프종,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장증후군, 소화성 궤양
	박무인	월,목,금	수	상임임: 아탈라제(식도만능증), 내시경 근활개술(POEM), 위식도역류질환, 기능성 소화불량, 변비, 과민성장증후군, 소화성 궤양, 헬리코박터 및 상부소화기질환, 소화기암, 진행성위장자 항암치료,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위 및 대장의 상피아병변(내시경초음파), 위장관 말초림프종,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장증후군, 소화성 궤양
	문원	화,목	화,목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베타트장염
소화기내과	김성은	화	수,목	위, 식도, 십이지장의 응중(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식도이완불능증, 내시경 근활개술(POEM), 위식도역류질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관련질환(위암, 위트림프종포함), 위루술
	김재현	금	월,수	대장암 클리닉,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응중(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대장폴립절제술위주), 유전성 대장폴립증후군, 대변이식외과, 기타 소화기질환
	정경원	화,수,금		치료 내시경(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탈라제(POEM), 위암, 식도암, 응중, 기능성 소화기질환
소화기내과	이명훈		월,목,금	검사목적의 내시경(위,대장), 일반 소화기 진료, 치료내시경(조기 위, 대장암), 위암,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이승현		화,금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응중(선종) 및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응중 절제술), 일반 소화기 진료
	최윤정	수		검사목적의 내시경(위,대장), 소화성궤양, 응중
신경과	손민영	목		검사목적의 내시경(위,대장), 소화성궤양, 응중
	유봉구	월,화,수	화	뇌졸중,치매,두통, 뇌졸중,치매 클리닉
	김영국	수,목	월,화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신경과	김민정	금	금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파킨슨병클리닉
	이진형	화,금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치료
	허소영			근전도검사
신경외과	전병준	목	월,수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희귀질환 클리닉 :매주 목요일 오전
	나주영	월	수,목	두통, 어지럼, 치매, 어지럼 클리닉 :매주 수요일 오후, 두통 클리닉 :매주 목요일 오후
	조혁래	월,수	월	뇌종양, 두개저종양,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신경외과	박정현	해외연수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김도연	월	월,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용우	수,금	수,금	뇌혈관질환, 뇌수두증, 뇌종양,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신경외과	이학수	화,목	화,목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혈관내 수술, 급성 뇌경색 신경중재치료, 자발성 뇌출혈, 외상성 뇌출혈, 신경계 중환자치료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신장내과	임 학	월,수,목	수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중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혈액형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연순	화,목	화,목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소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매주 목요일 오후
	신호식	월,수,목	월,수,목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매주 금요일 오전
심장내과	차태준	월,화,금	월,화,목	고혈압,협심증,심부전,부정맥,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세포심장학
	허정호	월,수,목	화	심혈관 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흉통클리닉, 고혈압클리닉
	임성일	월,수,목	수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봉준	금	월,화,목	심부전, 폐고혈압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수진	화,목	수	순환기,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여성심장
	박성달	월,목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종양
	김종민	화	월,화	일반흉부, 폐기종, 기흉,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흉부외상, 하지정맥류
	이해영	월,목	월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정맥질환, 흉부외상, 성인심장질환, 체외막산소화장치, 하지정맥류
안과	고택용	금	수,목	폐암, 종격동종양, 흉강경 및 로봇수술
	이상준	화,목	월	망막(황반변성, 망막박리, 망막전막, 황반원공,당뇨망막증), 포도막(홍채섬모체염,포도막염), 유리체(유리체출혈, 유리체 혼탁), 백내장, 인공수정체탈구
	이승욱	월,수,목	목	녹내장(시신경유두부종, 시신경유두함몰, 시신경손상), 백내장
	김창주	금	화,수	소안과, 사시, 복시, 근시, 성형안과, 신경안과(시신경염, 시신경병증) 안종양, 안외상, 눈물길
알레르기내과	김신동	금	금	망막, 일반안과질환
	김희규	월,수,목	월,목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면역결핍질환
	최길순	화,금	화,금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암성통증센터	최지현	수,금	화,수	만성기침,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등
	유제상	월,금	금	방사선치료(두경부암, 폐암, 흉선암, 식도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온열치료, 고압산소치료, 암성통증 조절
완화의학과	김미수	수	수	고용량 비타민치료, 면역치료, 암성통증 조절
	정원길	월,화,수,목	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위장관외과	공성김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윤기영	월,목	월	위장,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서경원	화,수	화	비만대사수술, 위암수술, 탈장수술, 외과대사영양학
	김기현	수	수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비만대사수술
유방외과	김윤홍	금	수,목,금	복강경, 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비만대사수술
	정성의	화,목	화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김구상	월	월,목	로봇유방암수술, 유전성 유방암, 입체정위생검, 유방암 경험자 클리닉
응급외과	최진혁	수,금	수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입체정위생검, 유방양성질환
	강철민			유방외과 일반진료
이비인후감상선 두경부외과	정주원		화	응급외과
	김영식		수	응급수술
	권재찬	월,목	화	중이수술, 난청, 이명, 어지러움, 귀의 염증, 삼출성 중이염, 고막질환, 소아 귀 질환,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이개질환, 귓볼켈로이드, 중이진주종,비파, 축농증, 비성형, 안면재건, 안외과, 비골골절, 코피, 산재 특별 진찰
	이형신	월,수	화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톡스, 성대 필러
재활의학과	김주연	화	월,목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 무호흡증, 코피, 코성형 클리닉
	김영준	화,목	수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마름, 입파선 비대, 목의 혹, 입술
	김동영	수	수,금	부비동 종양, 부비동 질환, 알레르기 비염, 수면무호흡질환, 코피, 기능적 코성형, 비골골절, 편도질환, 소아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심영주	목	월,수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암재활
	정호중			척추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김호찬	목	월,수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낮병동(조현병, 기분장애), 재활방지클리닉
	이상신	수	수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암환자 정신건강 클리닉
정형외과	김현석	화,목	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전공의	월,수,금	월,수,금	족부(발,발목) 질환 및 외상, 당뇨발 및 창상(고압산소치료)
	권영호	월	수	척추질환, 척추 비수술적 치료
직업환경의학과	정소학	화,목	수,목	근골격계종양, 고관절, 대퇴부
	김창수	월	수,목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지연	수,금	월	족부(발,발목) 질환 및 외상, 당뇨발 및 창상(고압산소치료)
	심대무	수~금	월	척추질환, 척추 비수술적 치료
치과	김정원		월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천식, 피부),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지현	화,금	화,금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현숙	월,목	월,목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현철	월	화	근골격계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피부과	김희진	목	월,화,목	치과보존과
	서고은	화,수,금	금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 감염, 외상, 임플란트, 매복치, 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은숙	화,수,금	화	치과 보철과 일반질환
	김민경	월,목	수,목	치주과 일반진료
해의학과	우혜문	월	월,수,금	보존과 일반질환 (충치치료, 근관치료, 치아 외상, 치아 재식, 치아 이식, 미세현미경 치료, 임 환자 치과치료, 전신질환자 치과치료 및 기타 치과 질환)
	장민수	월,수	월,수	여드름/주사, 건선, 손·발톱색소질환
	박중빈	화,목	화,목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피부질환
혈액종양내과	서기석	화,금	금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성설화		수	피부가려움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피부질환, 백반증, 건선
	김희영		월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김범수		수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호흡기내과	신성훈		월,수,금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폐암, 간담도암, 유방암, 비뇨기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이호섭	화,수,목	월,화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은미	월,수,목	목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호흡기내과	김다정	수	수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정만홍	금	화	폐암,천식,기관지염,결핵,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
	장태원	월,수,목	수	폐암,천식,만성기관지염,결핵,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
	옥철호	화,금	수,목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태화	수	수	중증 호흡기 감염질환, 호흡부전, 중환자 호흡재활
	김태윤	월	월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김도섭	화	금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의사라 부릅니다.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라 부릅니다.
의로운 의사라 부릅니다.
바보의사라 부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을 살려 헌신하길 원하는
백년의 약속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오늘도
전인치유를 실천 합니다.

